

학생 성추행 K교수에 “즉각 파면하라” 성명

학생회 “징계위 참여 등 요구”

파면서명운동 등 실시키로

해당 교수 질명휴직 발령

학생자치기구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선 총학생회장)가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인문대학 K교수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지난 10일 중앙운영위원회는 대자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000 교수의 성추행 징계결과에 대한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본부는 교수 직위를 이용해 제자를 연구실에서 ‘강제 성추행’한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교수에 대해 ‘2개월 감봉’이라는 어처구니없이 미약한 징계를 내렸다”면서 “가해교수가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성추행 가해자임을 인정한 만큼 해당 징계는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원대의 경우 성추행 교수에 대해 파면 조치한 선례를 들며 “학교 측에서도 모든 학교의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같은 사건 재발을 위해 “징계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학생위원의 참

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측이 해당 교수를 즉각 파면할 것 △감봉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근거에 대해 해명할 것 △학생관련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학생위원 참여를 보장할 것 △교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해당 교수 파면서명운동을 실시하고, 해당 교수 강의에 대한 수강거부 보이콧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중앙자치기구와 12개 단과대학 학생회가 참가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해당 교수의 징계수위는 위원회의 9명 위원이 토론과 표결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강원대 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학교 마음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 징계령에 따라 만드는 것이라 징계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 제20조 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사건 당사자인 K교수는 8월 23일자로 1년간 질명휴직 처리됐다.

김명지 기자

BK21플러스 6개 사업단·팀 선정… 7년간 100억 지원

관광·청정에너지·아열대·바이오 분야 등 인력양성에 탄력

교육역량강화사업비도 33억여원 확정… 7년 연속 선정

제주대가 BK21플러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교육부에서 추진한 BK21플러스-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사업에 우리 대학 2개 사업단과 4개 사업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청정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단장 김경연), ‘글로벌 제주 관광전문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단장 박시사) 등 2개다.

사업팀은 ‘아열대 생물자원 바이

오키 기술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팀장 김재훈), ‘아열대 해양생명 국제인력양성 사업팀’ (팀장 최광식), ‘해양바이오 인재양성 사업팀’ (팀장 이계희), ‘세포활성 응용기반 창의인재 양성’ (팀장 현진원) 등 4개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석사과정은 월 60만원, 박사과정은 월 100만원, 학술연구교수와 같은 신진연구자는 월 250만원을 7년간 지원받는다. 선정된 사업으로 총 100억

8000만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이남호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규모가 큰 타대학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것이다”라며 “이는 우리 학교의 연구 역량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열대와 바이오 산업 등 특성과 분야에 좋은 연구자와 품격 및 관광 등 제주에 알맞은 사업군이 사업 선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BK21플러스 사업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등 석·박사급 1만8500여명을 지원하는 대학원 지원사업이다.

제주대는 또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도 33억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액수는 지난해 26억4500만원에 비해 약 6억5천 오른 액수로 1만 명 이하 전국 국립대에서 2위이다.

제주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기존과 같이 장학금, 취업 프로그램, 교류수학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사라지고 대학특성화사업으로 바뀌면서 특성화 사업에 약 30% 정도 줄 계획이다.

대학본부는 지난해에 비해 6억5천만 가량이 오른 배경에 대해 지방대에 더 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일 것이

라고 분석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지표는 작년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크게 오를 이유가 없었다”며 “지방대에 액수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게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한 뒤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평가 지표에는 취업률, 교수학보율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대는 올해로 7년째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받고 있다.

강경태·김동현 기자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24일 열려

박사 31명·석사 194명·학사 402명 배출



지난 24일 오전 아라무즈홀에서 2012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이 열렸다.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4일 오전 아라캠퍼스 아라무즈홀에서 열려 학사 402명, 석사 194명, 박사 31명 등 총 5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관계기사 4·5면>
허창진 총장은 “사회에 나가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껏 받았거나 받게 될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갚아나가려는 마음을 가진 지성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장상·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논문 △교육대학원(석사) 고영민(교육학과 컴퓨터교육전공) △경영대학원(석사)

이봉희(경영학과 인사관리전공) △행정대학원(석사) 위길업(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표창장 △교육대학원(석사) 김미경(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경영대학원(석사) 양수원(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전공) ▲총장상 △양주희(응용생명공학전공) ▲학장상 △박지영(일어일문학과) △고명수(정치외교학과) △이지훈(경영학과) △김수진(회계학과) △강복주(관광경영학과) △김소정(지리교육전공) △조연정(화학) △김용환(통신공학과) △김복(중등체육교육전공) △김은비(한국학전공) 김동현 기자

총장공모위원회 6일 구성돼

위원장에 김진호 교수

10월 16일 이전 공모 개시

제9대 총장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맡을 총장공모위원회가 지난 6일 구성됐다.

이날 구성된 공모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장 4항에 따라 김진호(정치외교학과 교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이 공모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 부위원장은 △임화순(관광개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다음은 공모위원회 위원 명단.

△김치완(철학과) △김호찬(전기공학과) △고경희(초등교육과) △김문정(간호학과) △김중섭(통역대학원 한중과) △김봉수(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이창수(경영사업단)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의 응모 조건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의결 등 총장후보자 공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공모위원회는 10월 16일까지 총장후보자 공개모집공고를 개시해 공모위는 11월 4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는다.

‘그린캠퍼스’

대학에 선정

전국 20개 대학 중 5곳

제주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2013년 그린캠퍼스’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전국 20개 대학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제주대를 비롯해 고려대, 나사렛대, 부산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됐다.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각 대학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그린캠퍼스’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간 총 1억2000만원(연간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그린캠퍼스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갈 대학을 선정·지원해 대학을 지속가능성상의 모델이자 미래 창의적 친환경 리더 양성의 산실로 전환하고,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대는 환경부로부터 ‘그린캠퍼스’로 인증받음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 교육 강화 및 인재 양성사업 △친환경 그린캠퍼스 조성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교정 구축사업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자원절약 생활화 운동전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느영나영·복적복적 학습공동체 모집

학습·독서 동아리

다음달 4일까지 모집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에서 다음달 4일까지 학습공동체를 모집한다.

이번에 선정된 팀은 다음달 6일 최종 발표된다. 오리엔테이션은 12일부터 3일간 열린다.

신청은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jile.jejunu.ac.kr)에서 할 수 있다.

느영나영 학습동아리는 A유형(교과영역학습), B유형(교과외의 영역학습), C유형(학교 생활 적응 및 자유영역)으로 나뉜다.

모다들영 복적복적 독서토론동아리는 △일반자유 △교전감독 △일반&고전 △독서지도사 등으로 구분된다.

문의=기초교육원(754-2036)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설

능동적·공격적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세 정부의 교육부가 고등교육 주요 정책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8월 중에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권역별 공청회도 가졌다. 우리대학에서도 지난 13일 한양대에서 열린 공청회에 기획처·산학협력단·기초교육원 등 관련 부서의 보직교수와 직원들이 참석하여 새 정부의 대학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예의 주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의 정책 시안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과 ‘지방대학 육성방안’이다. 전자의 경우 4대 추진과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 혁신 등을 내세웠고, 후자의 경우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지방대학 인프라 구축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리대학 입장에서 특히 주목되는 시안은 물론 ‘지방대학 육성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확대’가 선정됐음에 비추어 상당한 정책적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정책의 취지가 무엇이고 방향이 어떠한지, 세부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여건과 학문분야의 특

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되 대학 전체가 아닌 학과·학부·프로그램 단위로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교육역량강화사업(ACE1)을 기초학문·교양교육 강화로 이어가는 한편,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ACE 플러스)을 신설하며, 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LINC)과 연구인력양성사업(BK21 플러스)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인재의 채용우대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관련 정책에서는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 역할을 대학이 수행토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지방대학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점이 각각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다.

자율성을 앞세워야 할 대학이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대학의 자율만 고집할 상황이 아니다. 지방국립대학인 우리대학의 입장에서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패 좋은 정부 정책의 주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걸맞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대학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따라서 대학본부에서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란다.

그대는 실천하라, 그대에게 주어진 것을

1994년에 개봉된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1992년에 발표된 양귀자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비뚤어진 남성관을 가진 여주인공을 그린 영화로, 2008년에 세상을 떠난 최진실이 여주인공 역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이 영화 제목은 조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도덕질서가 금지하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더라도 소망이라기보다는 욕망(慾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새로 학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욕망’을 말하는 것은 누구랄 것도 없이 마땅치 않은 일이다. 전에 없이 참으로 답게 보낸 여름이지만, 산학기의 초입에서는 ‘기대’, ‘활기’, ‘열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생 45% ‘2학기 등록금 학자금대출 계획’”이라는 신문기사를 대하고 보면, 신학기 초입에서 당연히 떠올려야 할 단어들 대신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개학을 앞두고 온라인 취업포털사이트에서 대학생 798명을 대상으로 2학기 학자금 대출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5.1%가 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들 중 78.3%는 직전학기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 중 95.8%가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취업도 하기 전에 빚이 생긴다는 부담

(72.7%),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57.4%), 빨리 취업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55.7%) 순으로 손꼽았다. 그러다보니 ‘괜히 대학에 입학한 것 같다는 후회’를 하는 학생도 적지 않은 것(25.2%)으로 나타났다.

늘 그렇듯이 문제는 돈이다. 물론 “단언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라는 의자는 항상 사람 수보다 하나 적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사는 한에 있어서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일이야말로 도덕질서에 반(反)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한 욕망을 부추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파산해야만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할 것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무소유 신드롬’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속성을 꿰뚫어본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개학 첫 주부터 수강신청변경으로 바쁠 학생들에게 권한다. 그대들은 소망하거나 욕망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대에게 금지된 여러 가지 것들(物, das Ding)이 아닌, 그대에게 마땅히 주어진 이 학기의 학업을 말이다.

교대, 6반→5반 체제로 개편… 인원 편차 줄여

‘하달식 소통구조’ 교학처-학생회 갈등

중요 사안 만나서 협의해 해소키로

지난해부터 교육대학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반 편성 문제가 매 학기마다 각 전공의 인원을 따져 반 전체 인원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이 도출됐다.

반 편성 변경은 지난해 6월 교육과 학기술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에 전달한 시간강사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 교과목의 설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공문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사라캠퍼스의 경우에는 2012년 2학기까지 유지됐었던 ‘6반 체제’ (11학번 기준)가 2013년 1학기부터 ‘5반 체제’로 바뀌게 됐다. 학사과는 사라 캠퍼스에 4개 반까지 축소하기를 요구했으나 교육대학은 교육과정 질 관리의 어려움이 발

생할 것이라며 5개 반을 고수했다. 이 지침에 따라 아라캠퍼스도 지난 학기 강의가 폐강되는 등 영향이 있었다.

2013년도 1학기 5반 체제(표1)는 반별 수강 인원이 10명 이상 차이가 나 교육의 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휴학생, 타대학 교류학생, 자퇴생 등 결원이 생겨 전공 교과목 설정기준 인원인 15명에 미달돼 폐강될 수 있는 발생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강의가 폐강될 경우 학생들의 졸업 및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대학 교학처와 교직원들, 학생회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와 면담을 거쳐 각 전공의 인원을 따져 반을 편

성하는 방안(표2)을 마련하였다. 이에 원준현(교육학전공 2)씨는 “전공을 나누지도 않고 균등한 교육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말부터 지속된 ‘6반 체제’를 ‘5반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회는 교학처의 의사소

통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윤정환 교육대학 학생회장은 “중요사안이 있을 때 학우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없이 통보식으로 하는 체제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이주석 교학처장은 “앞으로 중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학생회와 만남을 갖겠다”고 답했다. 교수회 기자

<표1-2013학년도 1학기 3학번 반 편성표>
3학번 총 126명기준(최저 20명, 최다 32명으로 편차 12명)

1반(총32명)	2반(총31명)	3반(총22명)	4반(총20명)	5반(총21명)
윤리 11명 국어 12명 수학 9명	사회 12명 과학 11명 체육 8명	음악 11명 미술 11명	실과 11명 교육 9명	영어 11명 컴퓨터 10명

<표2-2013학년도 2학기 3학번 반 편성표>
3학번 총 122명기준(최저 22명, 최다 27명으로 편차 5명)

1반(총23명)	2반(총23명)	3반(총22명)	4반(총27명)	5반(총27명)
윤리 11명 국어 12명	사회 12명 과학 11명	실과 11명 영어 11명	수학 9명 체육 8명 미술 10명	미술 9명 교육 9명 컴퓨터 9명

국제협력단과 업무협약… 개발도상국 봉사 등 협력

협약식 지난달 22일 열려

개발협력 위한 협력사업

제주대가 지난달 22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영목 영문명 KOICA)과 대외 무상 개발사업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수·해외봉사 등 무상개발협력사업 발굴 시행 및 평가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 또는 위탁연구 △국내외 개발협력 조직망 및 관련 정보의 공유 △간행물에 대한 정보 게재 및 활동 홍보



지난달 22일 총장실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의 상호협력 약정 체결식이 열렸다.

△회의실·강의실 등 시설물에 대한 상호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외교부 산하 정

부출연기관으로 1991년 설립됐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과 이들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단은 현재 국내 초청연수, 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재난긴급구호, NGO지원, 국제기구 통한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와 김영목 이사장 등 한국국제협력단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다짐했다.

교수 3명 정년퇴임… 퇴임식은 열리지 않아

강덕수(경영학과) 교수, 윤정수(지구해양과학과) 교수, 김양순(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가 지난 학기를 끝으로 퇴임했다.

강덕수(경영학과) 교수는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솔로수 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덕수 교수는 1983년 3월 제주대와 인연을 맺게 됐다. 강 교수는 생산관리학회 이사, 생산성학회 이사, 경영과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윤정수(지구해양과학과) 교수는

공주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해 연세대 대학원에서 지질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윤덕수 교수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지질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 교수는 1981년 3월 본교에 임용됐으며, 제주대 해양환경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미국 알래스카대학 해양연구소 객원 연구원, 한국 지구과학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김양순(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는 제주대 농가정학과를 졸업했다. 김양순 교수는 숙명여대에서 가정학

석사 학위와 미국 조지아 주립대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와 동국대 대학원에서 가정학 박사(아동, 가족 전공) 학위를 받았다. 1975년 7월 임용된 김 교수는 미국에서 조지아 주립대 연구교수와 노스텍 사스대 놀이치료센터 연구교수로 활동했으며, 제주상당학회 회장을 지냈다.

한편 강덕수 교수가 외국에 출장을 가서 퇴임식에 참가하지 못했다. 또 윤정수 교수와 김양순 교수가 참석을 사양해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박소연 기자



강덕수 교수



윤정수 교수



김양순 교수

사람들

김정홍 교수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김정홍(의학과 이빈후과학교술) 교수의 논문이 의학 연구 학술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7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Symmetric lipomatosis of the tongue, 혀에 발생한 대칭성 지방종증’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증례다.

현진원 교수팀 ‘사포닌…’ 규명

현진원(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인삼사포닌 대체제가 대장암 세포에 오토파지와 세포자멸사를 통해 세포 사멸에 이르는 기전’을 규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발간하는 관련분야 국제 저명학술지인 ‘Cell Death & Disease(인용지수 6.044)’에 8월1일자로 게재됐다. 이 논문의 제1저자인 박사과정 김아름다씨는 이 연구로 2012년 대한암예방학회 오색심포지움에서 우수구두발표상을 수상한바 있다.

교신저자인 현진원 교수는 국제 저명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의 편집학술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다

김명숙 교수, 우수 포스터상 수상

김명숙(생물학과·해조류 계통분류학 전공) 교수가 지난 24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제10차 국제조류학회(International Phycological Congress)에서 발표한 논문이 해조류분야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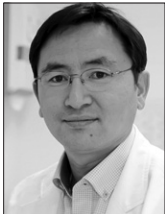
우수 포스터상으로 선정됐다.

논문 제목은 ‘Discovery of Cryptic Species in Polysiphonia sensu lato (Rhodophyta) based on Molecular Evidence’로, 색소체 rbcL 유전자를 분석해 홍조류 붉은실속(Polysiphonia)과 새붉은실속(Neosphonia)의 종 다양성과 계통학적 연관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특히 3개의 신종(N. bumelipilia, N. morroides, P. sabulosia)을 학계에 보고하면서 이들의 형태학적 특징과 계통학적 위치를 규명하는 학문적 성과가 있었다

현동걸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현동걸(초등과학교육전공) 교수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수원시 과학현장센터에서 열린 ‘2013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전구의 직렬/병렬 단순 전기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계산 방법의 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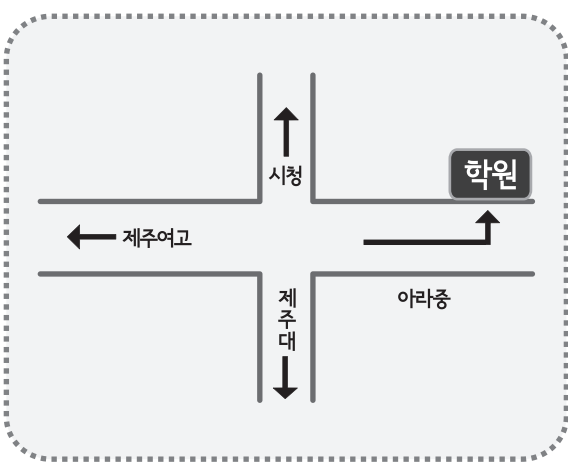
앞서 현 교수는 지난 2011년 같은 학술대회에서도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2013년 시민인문강좌 수강생 모집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인문학계와 일반 사회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 예정인 「2013년 시민인문강좌」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모집인원

구분	제주인문아카데미 - 바람(希望)의 제주, 인문학의 바람(風)	찾아가는 바람(希望)의 학교(드르라, 바람(希望)의 울레)
기간	2013. 09. 07(토)~2014. 06. 14.(토) (총 30개 강좌)	2013. 12월~2014. 2월(월1회) 2014. 7월~2014. 8월(월1회) (총 5개 강좌)
시간	매주 토요일 13:00~14:40(100분)	추후 결정
장	인문대학 1호관 1층 세미나실	해당기관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내외	50명 내외(해당기관인원)
비고		※ 시민인문강좌 개강 후 10월중 추진일정 및 기관 안내 예정

2. 신청대상자 : 일반시민 대상 및 소외계층 대상

3. 접수기간 : 2013.08.20(화) ~ 2013.08.30.(금) 18:00까지

4. 신청서 제출방법

- 붙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문대학 이메일주소

(inmoon@jejunu.ac.kr)로 송부

5. 기타

○ 전체 강좌의 80%이상 수강자에 대해 인문대학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문의처 : 인문대학 행정실(Tel 754-2702, 2703)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비민주 학칙 ‘학생활동 사전 승인’ 규정 아직도...

학생회 “국정원 성명서 발표 전 미리 보여줄 것 요구 부당”

학생처 “학내 질서 유지 등으로 규정 유지 불가피”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학 본부의 설명과 달리 ‘학생활동 사전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이 아직도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012년 11월 7일·14일자 한 중앙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규탄 성명을 발표할 때 대학본부에서 성명서 발표를 할 때 본부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물론 이는 학생 자치권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요구 무시하고 성명서 발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인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정황에 대해서 일부 시인했다. 관계자는 “사전 검열이라

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학생 계도차원에서 발표 전에 미리 내용을 알고 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대신문과의 인터뷰 당시 관계자는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대학 본부에서 학생활동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고 반론한 것과는 일부 상반된다. 이번에도 대학 본부 측은 “대학 내 상행위 등을 막고 대학 내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4장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학칙의 일부 내용이 자유로운 학생활동이 본부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절 제79조에는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79조 제1항에는 “학생회·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인 대상에는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간행물의 편집과 배포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7일 제주대신문이 보도한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에 대학 본부의 움직임은 전무했다. 지난해 인터뷰 당시 “규정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은 인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학본부에 해당규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학생활동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면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2005년에도 ‘오래된 대학 규정 개선 필요’ 기사에서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관리규정’에 대해 학생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대학 본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당시 학생처장은 인터뷰에서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학생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불합리한 조항은 검토해 보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둔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유신 정권에도 있을법한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아직도 대학 학칙에 존재한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빨리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지 기자

갑작스런 강의 시간 변경으로 수강신청 혼선

“시간 변경 미리 공지해야”
인력난으로 시간 변경 못해

수강신청을 앞두고 긴장감에 쌓인 K군과 친구들은 성공적인 수강신청을 해내자는 생각에 최신 사양을 자랑하는 PC방에서 과목번호 준비도 모두 마쳤다. 이제 남은 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일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현듯 알림창에는 ‘수업이 중복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인다. 당황한 K군은 다른 과목 신청으로 넘어갔지만 결국 원하던 시간표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시간표를 한참이나 망하니 바라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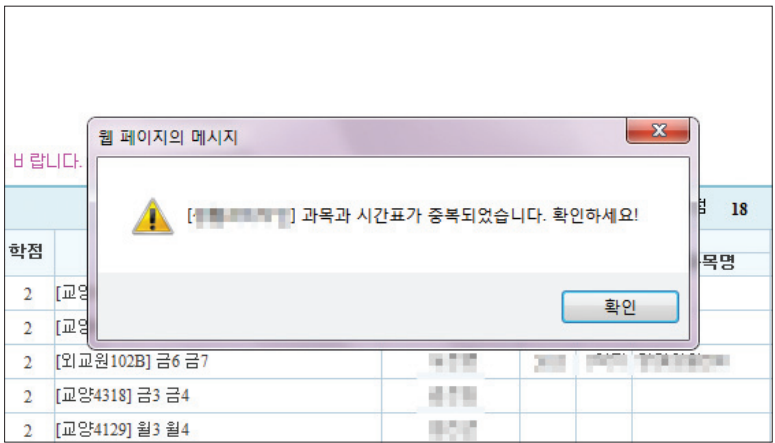
이는 지난 6일 수강신청을 준비하던 한 학생의 모습이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로 수강신청 기간 전에 임의로 변경되는

시간표 때문이다. 학생들은 1차 신청기간(8.5 ~ 8.9) 전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시간표를 확인한다. 하지만 수강신청 당일에는 기존 시간표와는 다른 수업시간을 확인하게 되고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안준환(언론홍보학과 1)씨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로 시간표를 짰는데 신청하려는 수업이 갑자기 시간이 변경됐다”며 “이 일로 목요일 수업 전체가 꼬여 버려서 막막하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다른 과목을 찾아 수강신청을 하려했지만 원하는 과목은커녕 인원 제한에 막혀 다른 강의조차 신청하지 못했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과목의 시간이나 폐강 여부, 담당 교수의 변경은 시간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며 “최소한 전공수업 같이 중요한 수업의 변경 사항



갑작스런 강의 시간변경으로 일부 학생들은 수강하러던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었다.

은 미리 학생들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대의 전공수업 ‘입체조형디자인’의 강의시간이 변경됐고 교양 수업 ‘발표와 토론’의 담당교수가 바뀌었다. 또한 ‘디지털 컨버전스’ 수업이 폐강됐으며 ‘인간행동의

이해’ 수업의 강의시간이 변경됐다. 학사와 담당자는 “학부 측에서 하루에도 몇 십 건씩 강의시간의 변경이나 담당 교수의 이동을 알린다”며 “변경사항을 적용시킨 수강시간표를 즉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수업실기 경연대회서 초등사회교육전공 최우수

지난 22일 교육대서
대회 올해로 5회 맞아

제5회 수업실기 경연대회가 지난 22일 교육대학 주최로 교육대학 교사교육센터 원격화상 강의실에서 열렸다.

수업실기 경연대회는 지난 2008년 통합 지원금을 받은 이후부터 교원양성을 위해 좋은 일에 써 보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취지에 맞춰 올해 제5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서 초등사회교육전공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초등음악교육전공, 초등국어교육전공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교육대학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수업실기 경연대회에는 3학년으로 구성된 12팀이 참가했다. 2년간 수없이 많은 수업 시연 과제와 지난 여름방학 수업 실습으로 다져진 수업 시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회장은 긴장감이 흘렀다. 대회장 앞은 분주했다. 수업 시연을 하는 것을 보러온 동기들과 후배들, 교구 준비는 잘 돼있는



지난 22일 교육대학 원격화상 강의실에서 제5회 수업실기 경연대회가 열렸다.

지 확인하는 발표자들, 모두 긴장한 상태에서 시연이 시작됐다.

모두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다양한 교구 준비와 기자재 활용,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교과서만 알려주어도 학생들이 수업 시연하는 모습은 보면 자신의 수업 시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승희(초등윤리교육전공) 심사위원장은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이 우리 학교가 전국교대 수업실기 탐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의학전문대학원 2호관 준공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의학전문대학원(원장 홍성철) 2호관 건물 준공식이 지난 22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렸다.

의전원 2호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은 1만1070.16㎡ 규모다. 이 사업에는 174억1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제주대 관계자는 “제주대학교병원 부지 내에 의전원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의전원-대학병원-기숙사’를 아우르는 ‘메디칼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성철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2호관은 오랜 숙업사업이었다”며 “앞으로 많은 연구와 좋은 교육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이 제2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관계자와 병원 및 제주도의사회회 관계



지난 22일 의학전문대학원 2호관 준공식이 열렸다.

자 등 참석해 의전원 2호관 준공을 축하했다.

김동현 기자

학위수여식사

목표 세워 열정을 쏟고 봉사하는 지성인 되길

먼저, 오늘 제주대학교의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맞아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의 학부모님과 가족·친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학위취득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성취는 개인의 영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대가족’ 모두의 자랑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오늘과 같은 축복과 기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정을 책임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인생여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당당히 도전해야 할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큰 꿈과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사회는 더 이상 학교와 같이 여러분에게 대학기 학점을 매기고 졸업장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을 겪다보면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성실하고 현명하게 나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보이던 꿈들이 어느 순간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론,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학업 끝에 선 이 자리는 또 다른 과정의 출발선입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은 학교에서의 생활과는 다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여러분은 이런 경쟁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다가올 사회생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주대학교에서 쏟아냈던 열정 그대로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론, 봉사하는 지성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의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거치는 동안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받은 도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갚아나가려는 마음을 가진 지성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가 보다 좋은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앞을 보고 나아가지만 항상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제주대인’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제주대학교 역시 올해 개교 61주년을 맞아 ‘제2창조적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창조적 도약의 궁극적 목표는 ‘국내 상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총장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 왔던 ‘대학 6대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대학 모든 구성원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도 대학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선 ‘호남제주권’ 1등, ‘전국’ 2등을 기록해 조선일보 등 중앙언론으로부터 ‘지방편견을 깨뜨린 값진 성과’라고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선 6년 연속 정부 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3개 대학만 선정된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전국 5개 대학만 선정된 그린캠퍼스 대학으로도 뽐내 제주대학교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대학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고민들의 성원, 그리고 우리 대학교를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아라벌에서 연마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가슴이 따뜻한 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창의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비상하는 모교 제주대학교와 지역과 국가를 이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네트워크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문들끼리 상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대학교가 키운 인재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학 건설을 위한 모교의 대장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모교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정성껏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직원 선생님들께 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졸업생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학위 취득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화석유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중부발전 태양광발전소 수익금 환원

“우수교원 양성에 써달라”
중부발전 15년간 4억여원

박상범 삼화석유 회장이 지난 23일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박 회장을 대신해 대학을 방문한 김희정 부사장은 이날 허향진 총장에게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이 지난해 제주대 건물 옥상에 설치한 1MW급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을 향후 15년간 대학 등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키로 했다.

중부발전은 6일 제주 칼호텔에서 최평락 사장과 허향진 제주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 발전소는 지난 1년간 하루 3263 kWh씩 연간 119만kWh의 무공해 전력을 생산했다.

앞서 2011년 중부발전과 제주대는 RPS 대응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3억원을 투자해 제주대 건물 14개동에 국내 최초의 1MW급 대학캠퍼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중부발전의 수익금 환원으로 제주대는 매년 3000만원씩 향후 15년간 4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익금은 신재생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 기타 대학의 발전기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학사 일정>

▶ 8.5.(월) ~ 8.9.(금)
제2학기 수강신청 기간

▶ 10.14.(월) ~ 10.18.(금)
제2학기 중간시험 기간

▶ 12.9.(월) ~ 12.13.(금)
제2학기 기말시험기간

사령

박소희(언론홍보학과 1)
고주희(초등교육학전공 2)
서예린(초등윤리교육전공 2)
한나연(초등과학교육전공 2)
부한주(초등교육학전공 1)
석정주(초등국어교육전공 1)

8월 5일자로 수습기자에 임명함
제주대신문

“영광스런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박사(31명)

중어중문학

루상평 문학박사
학위논문명
六朝法寶壇經에 나타난 漢字音 研究
－東國正韻과 비교를 통하여

법학

정정보 법학박사
학위논문명
전자계약의 법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행정학

오윤정 행정학박사
학위논문명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 제주의 지역개발형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을 중심으로

윤원수 행정학박사
학위논문명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경영학

이경자 경영학박사
학위논문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진정성이 기업 명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학

김대호 관광학박사
학위논문명
중국인의 제주관광수요증가에 따른 지역경
제과급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관광개발학

남윤섭 관광학박사
학위논문명
관광지 입지결정요인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를 중심으로

교육학

김명숙 교육학박사
학위논문명
연변지역 결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
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
의 구조적 관계 분석

오옥선 교육학박사
학위논문명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긍
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농학

고평열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 자생버섯의 종다양성 연구

해양생명과학

이원우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Effects of Ecklonia cava on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and the
improvement of innate immune
response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카스트리 사란야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Molecular insights into selective In-
nate Antiviral Signaling Mechanism
In Rock bream, Oplenathus fasciatus.

환경공학

고병철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국내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배출특성 및 바
이오필터에 의한 악취 저감효율에 관한 연구

김형철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의 식물기원 VOCs 배출특성과 오
존 생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길성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유전체장벽방전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용한
항생제의 분해특성에 관한 연구

토목해양공학

김남식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건설경기지표와 경영성과지표의 상관성을
통한 전문건설업체의 대응전략

정우열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도 하천 관측자료 기반 유출특성 매개변
수 도출 및 홍수유출량 산정

화학

김천석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초피 등 제주 식물 에센셜 오일의 화학조성
및 생물활성 연구

체육학

고영호 체육학박사
학위논문명
복합운동이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
이자에 미치는 영향

메카트로닉스공학

무하마드나옴아와이스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Printed Resistive Devices for Elec-
trical Switching and Memory Appli-
cations

두래사미 나와니탄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Development of Organic and Inorgan-
ic anostructured Thin Film through
Electrohydrodynamic Atomization
towards Multifunctional Applications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기계공학

박윤호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MOS 방법을 적용한 폭력터빈 발전영 예측
정확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에너지화학공학

왕영려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EIT에서 정문제를 위한 Meshless (A
Meshless Method for solving the for-
ward problem of EIT)

장두일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대기압에서 교류고전압 유전체 장벽방전 플
라즈마를 이용한 형광체 분말의 소수성 향상
(Hydrophobicity Improvement of
Phosphor Powder to using
Alternative Current Dielectric Bar-
rier Discharge Plasma at Atmospher-
ic Pressure)

에너지응용시스템 전기공학

김정혁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건물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내온도 제
어방법에 관한 연구

의학

오금희 의학박사
학위논문명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neuronal
cell death through mitochondrial cal-
cium and membrane potential

수의학

강완철 수의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 소 요내병 청정화에 관한 연구

양형석 수의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도 내 돼지 살모넬라종의 발생양상 분석
및 병리학적 연구

의공학 협동과정

레디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neuronal
cell death through mitochondrial cal-
cium and membrane potential

풍력특성화 협동과정

고정우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도 육해상 환경특성을 고려한 풍력단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사회교육학 지리교육전공

장승식 교육학박사
학위논문명
문화반응교수를 적용한 초등사회과 다문화
교육

석사(194명)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이선아

사학과
고윤정 이창훈 백종진

철학과
임원철 홍은선

경영학
장비미 김재균 홍은주

관광경영학과
이보흠

경영정보학과
이경은

농학
하영삼

농업경제학과
채윤성

생명공학부
박준형

응용생명공학전공
김성우 김현지 느구엔 타이 도롱훈

해양생명과학과
이승현 마사라게이가야니닐사라 창조

식품영양학과
박소현

가정관리학과
김진아 박서연 박정아

체육학과
김성철 윤호민 조가

통신공학과
양희

컴퓨터공학과
김민교 무하마드 소아입 민성현 진남 진서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임상섭

의학과
오정환 조우진

간호학과
박해서 부윤정

수의학과

김윤기 이상 이신호

미술학과
이숙희

풍력특성화 협동과정
김도한 김현우 진경민

해양기상학 협동과정
임명순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고형심 김지은 허원제

한중과
이하영

한일과
김호경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홍진 강동호 고영건 김미경 김유경 현길아

상담심리전공
강은정 강인정 고희숙 김완수 김은아 김은주
박소연 심지혜 양경미 양영석 오향심 윤인노
이향주 이혜숙 임설매 허봉심 허희임 현은정

영어교육전공
강인희 고은영 양혜은 오경순

사회교육전공
고민정

역사교육전공
김준

지리교육전공
변유헌 강승일 이승욱 이용규

수학교육전공
강지나 이나라 이재동

물리교육전공
강창익 양미나 한수자

생물교육전공
김동민

컴퓨터교육전공
고영민

영양교육전공
윤선화 전성은

체육교육전공
한찬석 오영택 고진수 황윤미

미술교육전공
고민성 강지은 오민경 김은희

음악교육전공
고은주 손주희

초등국어교육전공
김경애

초등과학교육전공
고동국 고영준 양정순 이창연

초등음악교육전공
강선미 허태경

초등미술교육전공
김지영

초등교육학전공
곽유진

초등영어교육전공
이미나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김여진 김이립 함현아

경영대학원

인사관리전공
박순택 양병철 허성오 강민정 강봉석 김균홍

김지형 김희정 문창용 손승민 윤재관 이봉희

마케팅관리전공
강동환 김성언 허은정

재무관리전공
김성재 장시호 한정실

회계학전공
배종웅 김영생

관광경영학전공
김수현 강봉조 김정아 양순임

호텔경영학전공
이권희 김인덕 양수원

부동산경제학전공
강문숙 김신덕 고종호 안정율 오창민

경영정보학전공
손영환 주삼차

관광개발학전공
양해석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강명도 김재현 김지희 안창준 위길업 이기택

지방자치전공
박경필 김기관 김성철

사법행정전공
김주영

정치학전공
김영선 김두생

언론학전공
현개희 오하준

산업대학원

어업학과
강석

환경공학과
김동진

말산업학과
김덕문 김범 김성룡 문효숙 조옥희

토목공학과
강지성 홍정호 김영찬

건축공학과
양정희 진정실

환경공학과
이종철 홍성주 임희광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강형민 신수옥 최미숙 강선미 김수선 김영아
정승미

학사(402명)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엄준역 양은영 한혜경 김진형 왕우

영어영문학과
양시영 이은상 고누리 강경필 강윤정 이미림
한지연 문보경

독일학과
강현영 전민제 박순영 김지원

일어일문학과
김지훈 김승희 배성찬 고명인 문혜경 문지원
박지영 오혜령 김태연 고주희 고혜경 강자연
김연이 홍주희 우월연

중어중문학과
오승환 정예지 김형찬 김주희 박현주 양수정
유서영 조혜진 박은선 공지혜 홍해정 문보경

동양학군 중어중문전공
김민선

서양학군 영어영문전공
김성철

사학과
고윤호 김용재 양수희 강문정

사회학과
신행근 김지희 박은주 박한솔 허지훈 김미나
고용희 김윤혜 이녕

사회과학대학

철학과
고은경

법학부 법전공
고광석 김정훈 임보혁 김병주 고현정 문예리
원승필 이은애 고은지

법학부 국제법무전공
김한석

행정학과
한동수 박형건 김승한 강지수 강희경 양지범
김정민 강혜숙 강희성 김지현 문형석 양수임
오승훈 한태웅 홍승완 고은비 김수연 김은정
문지나 조수민 천민균 허아름 고서희 라약룡
윤희은

정치외교학과
홍지훈 고명수 이상욱 박선주

언론홍보학과
이보람 이승호 김승도 유명한 박민아 이미희
우치문 마신 주영 고침의

경상대학

행정학과(야)
박희원

경영학과
현왕훈 차경민 고승현 양훈석 김민규 김진원
신성현 고혜진 이지훈 고준호 김민수 김반석
강하영 김주희 장소영 강주용 김승혜 김연심
홍윤지 김시내 양지연 신유리 고성희 좌경미
허창

관광경영학과
서영우 양우종 고성훈 유충재 양성현 장수진
최지민 홍봉호 박지영 강복주 이영수 오예원
임다정 김보미 김주천 박유진 정다혜 박지영
이한글 이영림 김은혜 강보람 이해위 왕설려
묘맹 양병 방형 서원 오단 위몽 초초 하교교

회계학과
박기완 신정흠 주영만 최윤봉 김기범 한우철
고봉준 김진철 김태훈 오현영 김명희 김수진
오나래 이수미 이소정 고은정 조나영 이상보
장영

무역학과
이상목 문태준 김성은 김승관 심현우 홍기훈
이수현 유하나 김민아 홍은진 김지연 김성룡
왕상수 우아봉 이성 이창 장유양 주방 진니
이승엽

경제학과
양태준 고민호 노광선 장규민 조영주 현용호
박성찬 고문정 현상훈 강경덕 유민지 이기쁨
김윤선

관광개발학과
강준호 임수진 허민지

경영정보학과
김상현 김원 이승철 강태훈 문신화 윤현정
임효진 김현

경영학과(야간)
오혜경 김대성 전병열 주지용

회계학과(야간)
정정현 김동하 이민아

관광경영학과(야간)
이선진 김한나 이승환 장기준 홍유미

<5면에 계속>

글로벌 역량 실현키 위해 ‘국제학부’ 설립해야

학술기고 홍콩의 교육개혁과 국제화 전략



이 인 호
교육학과 교수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염원한다면 뉴욕, 런던, 홍콩과 같은 세계도시가 걸어온 길을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나이론콩(Nylongkong)’이라는 신조어는 뉴욕(New York: Ny), 런던(London: lo) 그리고 홍콩(Hong Kong: kong)의 합성어이다. 사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한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로 우뚝 일어난 도시로서, 뛰어난 적응력과 개방성 그리고 다문화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라는 것이다. 제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홍콩은 ‘아시아의 세계도시(Asia's World City)’를 추구하고 있다.

홍콩의 역사와 교육

홍콩은 1997년 7월 1일에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중국과 1국 2체제(One China, Two Systems)의 자치정부로서 공식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홍콩정부’라고 함)이다.

정부형태는 행정수반책임제이며, 2047년 까지 외교, 군사를 제외한 부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홍콩의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제주도의 12배가 넘는 인구가 제주도 면적 5분지 3의 작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구의 약 95%는 중국인이며, 언어는 중국어를 공용어(廣東語)와 상용어(普通語)로 하고 영어를 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1인당 GDP는 34,049달러로 높으며,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4대 수출국이다.

홍콩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통치기를 겪으면서 도시국가(City State)로서 영국 시스템과 유사한 교육제도 및 학제를 발전시

켜 왔다. 홍콩정부는 6~15세까지 우리나라와 같이 9년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콩의 학제는 6(초등학교)-3(초등학교)-2(고등학교)-2(제6과정)-3(대학교)의 복잡한 구조였으나, 2004년 학제변경안에 따라 2009년부터는 6-3-3-4 학제로 간소화 되었다. 그리고 홍콩은 PISA성적에서 핀란드에 이어 우리나라와 우위를 경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홍콩의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홍콩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각종 데이터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홍콩 교육개혁의 핵심은 2000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정한 ‘삶을 위한 학습과 삶 속에서의 학습(Learning for Life, Learning through Life)’이라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중점사항으로는 입학 시스템 및 공정한 평가와 시험의 개혁, 교과과정의 개혁 및 교수 도구의 개선, 교수-학습 평가 매커니즘의 개선,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평생학습의 기회 확장, 효과적인 자원 배치 전략,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현장 교사 지원 방법 모색 등이 열거된다.

이러한 홍콩의 교육개혁을 요약하면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선택, 경쟁 그리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국민교육뿐 아니라 국제교육과 대학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홍콩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대학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홍콩정부는 전체 예산의 약 23%를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제3자 교육(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홍콩의 대학들은 철저히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목표를 갖고 있으며, 모든 학과의 교과목은 국제화에 맞게 편성되어 있다.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교육프로그램에서 외국인 학생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1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해 현재 홍콩정부는 국제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



지난달 5일 홍콩교육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 발표자들의 기념촬영.

는 중이다.

사실 홍콩의 대학은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17~20세 학생들의 9% 미만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의 수가 부족했었다. 하지만 1995년 이후는 침례대학, 이공대학, 사범대학 등이 정규 대학으로 승격되고, 홍콩과학기술대 등이 설립되면서 8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사립대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홍콩 학생의 약 30%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세계의 명문대학인 홍콩대는 1911년에 설립되어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아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2013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홍콩대는 36위(서울대, 41위),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와 함께 1위(서울대, 4위)를 차지하였다. 홍콩대의 성공요인은 세계적 권위의 저명한 외국 교수의 영입, 각종 교육규제의 완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국제화 및 특성화 그리고 중국계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50대 초·중반의 총장 초빙으로 압축된다. 특히 홍콩대는 새로운 100주년을 향하는 개혁의 핵심가치로 학생중심, 질(평가) 중심, 단과대학단위의 책임경영제를 실현하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대와 제주도의 제주대

홍콩대를 포함한 세계 우수한 대학개혁의 공통점은 대학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명문대학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산학협력을 강

화하며,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하면서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홍콩대의 성공이 시사하는 바는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요소가 녹아진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와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대외지향적 ‘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 건국대는 2013년 아시아 100대 대학에 진입하며 국립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중에서 13위를 차지했다. 그 기반은 과감한 투자, 우수한 교수 그리고 국제화의 3박자였다고 한다.

차체에 우리 제주대학교도 글로벌 역량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학부’ 설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저기 분산된 학내의 국제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관련 학과를 융합하여 제주도 지정학적 여건에 맞는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2013년 7월 25일 체결된 제주대와 홍콩대 간의 MOU는 외적인 성과보다 그 내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제주대학교가 한라산 중턱에 있다는 것이 고마울 때가 많다. 제주지역의 현실에 매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먼 거리가 아닌 지척의 거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의 외관은 마치 모진 비바람이 칠 때면 납작하게 엎드려 그 환경을 소화하며 해배(解配)를 고대하는 낮은 포복의 형상이다. 그러나 풍겨나오는 내공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태평양을 사모하는 이상과 미래를 품고, 바닷가 제주의 현실을 보듬기 위해 지역사회로 출출세간(出出世間)하는 당당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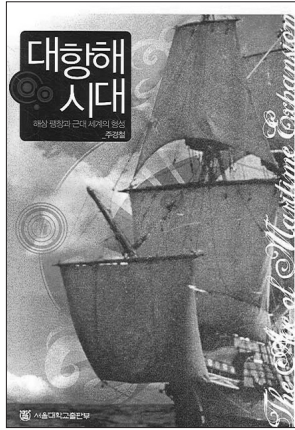
권하고 싶은 책

대 항해 시대의 교훈: 역사의 실수와 도전의 결과

늘 곁에 있는 책 중에 하나인 『대항해 시대』(주경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를 꺼냈다. 2008년쯤에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 넓은 바닷에 그려진 대항시대의 포르투갈 영토에 충격을 받아 읽기 시작한 책이다. 그것은 대항시대에 그들의 도전이 얼마나 가열 차는지에 대한 증표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지금은 초라해진 국가에 살지만 다시 국가의 부흥에 대한 자신감과 의무감을 부여해 주고 있는 화두였다.

이 책은 15세기 이후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상술하고 있다. 총 3부 제9장으로 되어 있다. 제1부는 15세기 이후의 세계구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아시아 중심 국가에서 유럽중심국가로 이전해 가는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 제2부는 폭력의 세계화 부분으로서 해상의 팽창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이 어느 면에서부터 커지고 잔인해지며, 이것이 결국 군사적 형태로 발전되어 대량살상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제3부는 세계화·지역화에 대한 기술로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생태환경과 종교의 변화와 확산, 이로 인한 언어, 음식, 과학기술 등이 어떻게 세계화되고 그러면서도 지역적으로 고착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1부에 대한 내용이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현재 제주도는 4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바다를 가장 경시하거나 관심을 둔다고 해도 한참 연안어업정도다. 바다가 주는 기회가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는 해양에 대하여 외면한지에 매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먼 거리가 아닌 지척의 거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의 외관은 마치 모진 비바람이 칠 때면 납작하게 엎드려 그 환경을 소화하며 해배(解配)를 고대하는 낮은 포복의 형상이다. 그러나 풍겨나오는 내공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태평양을 사모하는 이상과 미래를 품고, 바닷가 제주의 현실을 보듬기 위해 지역사회로 출출세간(出出世間)하는 당당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주경철 지음
『대항해 시대』

바다를 버리고 내륙으로 쫓겨간다. 결국 바다를 지배하던 일본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해양을 금지시킨 이 정책이 중국 역사에 최악의 실수로 기록되는 이유다.

반면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통해 최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두 나라는 15세기에는 교황이 중재에 의한 토로세시아스 조약(1494년), 16세기에는 두 나라가 합의한 사라고사 조약(1529년)에 의해서 세계 식민지 분할선을 작성할 만큼 대항시대를 만들었다. 이후 국가와 자본의 결합에 의한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들의 등장으로 두 나라는 그 시절을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세계 제2언어가 스페인인 점 등은 아직도 대항시대는 역사에서 결코 멀어져 있지 않다. 해양에 대한 도전이 한 국가와 지역을 얼마나 융성하게 하였는가에 대한 증명이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다. 미국 해군력이 세계 해군력 제2위에 서부터 제14위 국가까지 합한 것 보다 우위이기 때문에 해양을 지배하는 지역과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동여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내용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하여 열린 대항 시대는 국가가 아닌 민간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비록 제주도가 국가가 아니지만 해양중심 지역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워져 잡은 새우같이 잘지라도 꿈은 고래같이 꾸라”는 대항시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양영철
행정학과 교수

<4면에서 계속>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경범

영어교육과

오대근 김경환 김중범 이효원 이훈 최광철 김선하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김두현 양근록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최은영 김주연 김소정

윤리교육과
김근범 강나리

수학교육과
박승우 이한결 김주연

과학교육과 생물교육전공
한혜령 박진선

컴퓨터교육전공
유지은 고동욱 김이슬 박소정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학과군 동물자원과학과
김준규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박우진 김현진 고은이 송민아 양성윤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최일준 염암

생물산업학부 동물자원과학전공
김해동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전공

김형근 양주희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김용주 이윤정

산업응용경제학과
조용우 양성록 고경수

해양과학대학

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김희주 전기영 유진

해양의생명과학부 수산생명의학전공
고준호 부준석 이성도

지구해양과학과
손경수 하승길 장유리 정통 이석주

환경과학과
김병준

토목공학과
김국현 김신형

해양시스템공학과
현종우

해양과학부 해양산업경찰학과
고권오 고민기

해양과학부 토목환경공학과
오용민

해양산업경찰학과
허재호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송명희

생물학과
고정수 강지현 고지연

화학과
우재민 오남호 김소영 조연정

식품영양학과
임승호 원진아 김수희 조은설 원박 이명희

수학과
최꽃잎 오정은 김현아

전산통계학과
양준서 이동관 이병현 강신의 박동철 이인혁 김지수 현소임 김지혜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거·가족복지전공
윤현

의류학과
장병수 김수진

체육학부 체육과학전공
정창임 김예지

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최재준 이민국 한민석 신동일 김솔잎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김상학 안혜성 김현실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김정원 장빈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고현규 김재하

통신공학과
김태현 한명철 김영탁 강철희 김용환 변경필 장승호 김지혜 김연화 강윤정

에너지공학과
고영우 박선민 이바로 임서연 김아름

컴퓨터공학과

김대현 박재철 원충의 두명양 사봉 섭은 왕건
왕룡 왕천현 요기인 육건봉 유근

전기공학과
고유건 최재원 김용민 이영목 강봉호 노민규 서동국

생명화학공학과
김경범 현승조 이동준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김호철 강경현 고준혁 김동규 문성윤 정화성 윤재필 학명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초등체육교육전공
김목

초등교육과 초등음악교육전공
최해림

예술디자인학과

음악학부 성악전공
고일형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김아름 고예원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김시은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김은비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변세희

미술학부 조소전공
김주석 김선영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이미내 정초희 강혜련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접수마감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기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2014년 신년특집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예정)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

관광객수보다 관광수입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숫자에 갇힌 제주관광의 미래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8월 하순,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언론 여기저기서 기록 행진을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탐방로를 새로 만들고, 정상을 뒤덮고 있는 데크도 확장한다는 서귀포시의 목소리도 살짝 엿혔다.

성산일출봉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어디나 관광객으로 넘쳐난다. 언뜻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다. 작년 관광객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날마다 기록행진을 쏟아낸다. 이를 놓치지 않고 제주도정은 성과를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총량적으로 관광수입은 늘겠지만, 이에 동반하는 문제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정의 관광정책이다.

세계의 유명한 섬 관광지와 제주도를 비교해보자. 2010년 제주의 관광객은 약 천만 명, 관광수입은 3.4조원이다. 하와이는 관광객수는 708만 명이고, 관광수입은 12.9조원이다. 관광객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와이의 관광수입은 제주도의 4배다. 관광객 1인당 수입을 비교하면 더욱 격차는 커진다. 타이완의 경우는 관광객수는 557만 명이고, 관광수입은 10.1조원으로 제주도의 3배다. 어디에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관광사업으로 생기는 수입보다, 숫자만을 중시하는 관광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줄곧 던지는 메시지는 관광객수가 늘었으니, 그만큼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는, 그래서 성과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관광객 수가 지역의 소득에 어떤 향상을 가져왔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관광산업은 굴목 없는 산업이라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정말 그럴까? 관광이 관광지에 주는 부담은 찬찬히 보면 작지 않다.

우선 제주도의 특성에 기인한 환경부담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의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호텔 등의 대부분은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늘어나는 관광객 수만큼 지하수 이용은 급증한다. 관광객은 거주민에 비해, 쓰는 양이 현저하게 많다. 타 지역에 여행시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하게 되

면, 많이 썼다고 추가로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거주민에 비해서 관광객이 쓰는 양이 5배 정도를 초과한다고 한다. 또한 교통부담을 유발한다. 관광객 최대치에 맞추어 렌트카, 전세버스 등이 갖추어지고, 따라서 거주민에 비해서 더 많은 교통량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서,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게 되면서 환경을 훼손한다. 공해도 유발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도 낮아진다.

관광객의 숙소를 짓기 위해 보전해야 할 지역이 난개발되기도 한다. 또한 관광객이 발생시키는 쓰레기와 생활하수도 섬이라는 조건에서 처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감당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을 확장해야 한다. 신공항을 만드는 것에는 많은 환경적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도민의 연륙교통수단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제한받기도 한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관광은 굴목 없는 산업이 아니다. 산업시대의 공장 굴목만 없애는 뿐이지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파는 것처럼 관광산업을 인식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유네스코 3관왕... 전시행정·경제효과만 노려

제주도정은 1000만 관광객 홍보에만 주력

관광지 주변 난개발 우려가 현실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위해 진지한 성찰 필요

특히, 제주의 자연환경에 집중되는 관광객의 부담을 농쳐서는 안 된다. 제주는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랍사르습지 등 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등 재되어 있다. 유네스코가 특정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정하는 이유는 세계에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유네스코는 사유지가 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지가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결국 소유자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보존에 동참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독특한 개념을 만든다. 반드시 보존해야 할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묶고, 그 주변에 완충지역을



관광객수에 집착하는 관광은 결국 관광의 질이 낮아지고, 관광객의 불만족은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진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성산일출봉.

두고 다시 완충지역 외곽에 전이지역을 둔다. 핵심지역은 사람의 발길도 극단적으로 통제하고, 완충지역에는 탐방시설 외의 시설물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완충지역 외곽에 있는 전이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물이 허용되는

계자연유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핵심지역에 1년에 3백만이 넘는 관광객을 허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아해할 것이고, 보존외지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다. 이는 한라산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시설로 인한 훼손의 문제도 있지만, 지나친 탐방객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사람들의 소음으로 동물들의 정상적인 서식환경이 위협받으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관광에 이용하는 경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임에도 제주도정이 취하는 정책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찾아보지 않는다.

관광객수에 집착하는 관광은 결국 관광의 질이 낮아지고, 관광객의 불만족은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관광객들 다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자연과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제주를 기대한다.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으로 넘쳐나는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관광을 할 수 있을까. 그로 인해 제주는 한번 찾고 다시는 오지 않는 일회용 관광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경향은 제주관광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다. 관광이 중요한 제주지역의 산업이라면, 관광산업의 과실이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관광산업으로 잃는 기회비용 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가, 제주지역에 맞는 관광패러다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관광을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산일출봉의 사례를 보면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지역인 분화구 주변에 늘어나는 관광객에 맞춘 데크시설의 확장, 늘어나는 탐방객수에 맞춰서 새 탐방로를 만드는 등 핵심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극도로 탐방객수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평균 만 명에 달하는 탐방객수에 맞추어 오히려 시설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관광객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온전히 이런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산 일출봉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영어권과 일본 관광객이 작년 대비 50%이상 줄었다는 것은 가깝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세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 14 > 마을기업 성공 이끈 홍창욱씨

“제주농업은 젊다... 가능성 충분”

전혁진인 농촌부락으로 광활한 평야를 이루고 있고 나지막한 동산들이 포근히 감싸고 있어 낙원이라도 불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이곳에서 제주시자 홍창욱(37·무릉외갓집 총괄실장) 씨를 만났다.

홍창욱씨는 어느 제주 이주자처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나서 여유롭게 살고싶어 제주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관련 회사에 있었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군대를 좀 길게 다녀오고 하니까 사회 진출이 조금 늦었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가 들어 고민을 하다가 제주로 이주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보자 해서 오게 됐죠.”

홍씨의 직장은 무릉외갓집. 무릉외갓집은 전국각지로 제주농산물을 보내는 마을기업이다. 무릉외갓집은 제주 농산물을 매달 택배로 배송하는 농산물 프로 그램이다.

무릉외갓집은 회원 수만 500명이 넘는 정도로 성공한 마을기업으로 꼽힌다. 지금도 입소문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며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1년 동안 약 40만원으로 매달 제철음식을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무릉외갓집은 특히 지난 2월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로부터 마을·기업제휴형 성공사례로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무릉2리 마을은 올레 코스 있는 마을과 회사하고 매장을 해서 1사 1올레 협약을 맺었다. 무릉2리는 공기청정기 유통기업인 벤타 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무릉외갓집이 나오게 됐다.

“무릉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포장해 전국 여기저기 처음 보내기 시작했어요. 2009년도 12월이 첫 배송이었고, 농수산물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매달 제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박스 포장해서 보내는 형태죠.”

홍씨는 무릉외갓집의 일을 많은 부분 도맡아 하고 있다. 홍씨가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제주가 타 지역보다 농업에 있어 경쟁력이 있어서”라고 했다.

“농업은 타 지역의 다른 농촌지역보다는 굉장히 농사짓는 분들이 젊은 편이고 양도 많은 편이라 활성화됐다고 봐요. 타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홍창욱 무릉외갓집 총괄실장

감귤과 열대과일, 월동채소도 있죠.” 홍씨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팟캐스트로도 표출하고 있다. SNS 등 뉴미디어에 능통한 홍씨는 팟캐스트로 농부, 농산물 유통업자, 요리사 등을 지난해 2월부터 인터뷰하고 있다. “제주에 내려와 관심을 갖게 것 중 하나가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게 저의 소소한 재미죠.”

홍씨는 지난해 언론홍보학과 강사로 ‘뉴미디어실습’ 과목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어했다.

“저도 대학생활 대학원 생활까지 하면 ‘왜 그리 앞만보고 달리면서 인생을 살았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후회되는 삶을 살았어요. 어쨌든 빨리 생활을 시작해서 본인만의 영역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었어요.”

홍창욱씨는 학생들에게 취업문제에 직면했을때 돈이 아닌 비전을 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성공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야해요. 저는 제주도가 좋아서 농산물 쪽이 험하긴 한데 비전을 보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도시에서 건조하게 일하는 것보다 재미있어요. 하하”

김명지 기자

새로운 제주 정치 위해 ‘세대 교체’ 필요

제주주민자치연대 주최 ‘제1회 풀뿌리 정치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주최한 제1회 풀뿌리 정치포럼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새로운 제주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내년 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제주정치의 당면과제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이규배(제주국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위성곤·강경식(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고병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고명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소장, 송창윤(제주내일포럼 대외협력실) 실장, 문상빈(정의당 제주도당) 정책국장 등의 주

제발표와 방청자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이번 풀뿌리 정치포럼을 시작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포럼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제자 내용 요약. ▶위성곤(민주당 제주도당) 도의원 “연대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돼야” 내년 지방선거는 도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로 세대교체가 화두가 될 것이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세대가 구분될 과거에는 민주 대(叡) 반민주 구도로 뚜렷이 갈렸다면 지금은 우리 편에도 나쁜 놈이 있고, 저쪽 편에도 좋은 놈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강경식(무소속) 도의원 “제주비전 구상 위해 합심 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세대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대결구도로 가야 한다.

제주에서는 최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내건 민선 5기 우근민 도지사가 출범했다. 해군기지는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다. 진보진영 정당, 시민사회가 이슈를 전국화했지만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부의 해군기지 강행을 막기에 역부족하고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우근민 도지사는 마지막 출마라는 약속을 파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고 김태환, 신구범 전 도지사들도 사실상 출마를 저율절하고 준비하는 분위

이다. 미래지향적 제주비전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만들며 공유하고 차이를 극복하며 연대해야 한다.

▶고명희(제주여성상담소) 소장 “정당 공천제 폐지 재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지방선거 정치 쉐인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초단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개최한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공천제 토론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 계층의 정치진입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 또한 박탈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들을 위한 정치참여확대와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확충을 위해 정당 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발전적 보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 가족 양립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또 여성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 외에도 △여성고아동이 폭력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대표성 확대 △성주류화와 여성정책 추진 체계 조성 △여성장

래인 정책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이주여성의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이 요구된다.

▶고병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제주 이글 지도자 세대교체”

최근 들어 사회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의 문제와 386세대의 주도권 상실 등과 더불어 촛불항쟁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서 어떤 생각과 역할을 부여해야하는지 느끼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문제와 허상이 날날이 보이는 상황에도 그것을 보물보따리인 양 안고 가려는 세력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진정한 시대교체가 무엇인지 명확해지지 시점이다.

넓은 사고와 노쇠한 정치인들이 신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세대교체 또한 제주도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본다.

▶문상빈(정의당(준) 제주도당) 정책국장 “진정한 특별자치도 돼야”

현재 도정이 지양하는 특별자치의 실현을 위한 중심과제는 중앙정부의 사무관련을 이양하는 것과 인천과 부산, 대구와 같



지난 23일 주민자치연대가 주최한 제1회 풀뿌리 정치포럼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은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도정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도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 도와는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돼 있는 원래의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복지 제도 등의 적극적인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시민사회 진보정치진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단순한 특별법의 소폭개정과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특별법 내용 중 특별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률적 내용을 살리고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정치적 운동을 발전시켜나가기 한다.

▶송창윤(제주내일포럼 대외협력실) 실장 “초심으로 돌아간 정치 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새로운 제주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성장과 개발이 아닌 힐링과 치유하는 제주를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운영이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제도와 법이 좋아도 운영자가 잘못 운영한다면 그 제도와 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20년간 제주지방자치의 운영주체는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갖는 세력의 관주도 운영이었다. 이제 그 운영의 주체를 생명과 평화의 패러다임을 갖고 주민참여, 생활정치로 운영하려는 시

민 주도의 운영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민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제주가 중심인 정치 조직화를 이뤄내야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를 고민해야 한다.

김명지 기자

교수시론

일에 의미 부여하기



현정석
경영정보학과 교수

“

어떤 일에 대해 자신만의

추상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그 일이 즐거워지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

”

우리나라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53년에 69달러였는데 2010년에 2만 달러를 넘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 27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성취도는 조사에 참여한 50개국 중 2위이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50위인 꼴짜이다. 우리의 객관적인 성과지표는 훌륭하지만 정신적인 가치만족은 저만큼 뒤쳐져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열심히 하는 일에 의미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2011년 한 조사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물었다. ‘보수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응답이 74%로 나타났다. ‘경력을 쌓아가는 수단’을 선택한 사람은 51%로 나타났고, ‘일하는 자체가 좋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뿐이지 보람이나 자아실현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결명한 소명의식으로 연결 지지 않았다.

사람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공간에 대한

원근법과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 가까운 시간에 대해서는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나무를 보는 반면에 먼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숲을 보는 성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대학 신입생이 먼 미래에 속하는 졸업을 생각하면, 어려운 과목일지라도 배우는 것이 많은 유익한 과목을 들으려 한다. 내일 당장 수강신청을 할 때는, 아침 1교시를 피하고 과제물이 적으면서 학점은 후한 수업을 선택한다. 먼 미래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목적과 바람직성을 떠올리는 반면에, 가까운 미래를 떠올리면 그 일을 수행하는 수단과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이 때문에 먼 미래를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추상적인 사고를 하여 가까운 미래에 초점을 두는 근시안적인 사람보다 자기통제를 더 잘하고 만족도가 높다.

마약중독자와 일반인에 대해 가상의 시간 시나리오를 채우는 연구에서 마약중독자가 평균 9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반면에 일반인은 4.7년으로 나타났다. 시간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 미래를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와 학업성적이 좋고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칼 린네(1707년~1778년)는 식

물과 동물의 분류체계인 이명법을 발명하였다.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명명한 이가 린네다. 학생이던 25세의 린네는 스웨덴 북극지방 라플란드로 2천km의 거리를 5개월 동안 탐사하였다. 1735년에 <자연의 체계> 초판을 발행했는데 당시 단 12쪽에 불과했다. 그의 평생 연구는 1768년까지 12판의 책으로 이어져, 약 15,000종의 생물을 담은 2,300쪽의 방대한 연구물로 남았다.

린네는 동식물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17명의 제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냈다. 소명의식이 강했던 17명의 제자들은 1745년~1799년 동안 러시아, 시베리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 북극해, 남극해까지 탐험을 하였다. 이후 약 50년 뒤에 찰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섬에 갔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곳이 린네학회였다.

동양고전 회반자는 “사슴을 쫓는 자는 대산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근시안적인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먼 미래의 이상을 놓치게 된다.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일에 대해 자신만의 추상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그 일이 즐거워지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

동문칼럼

안단테 칸타빌레

‘뚝뚝뚝...’ 내리는 빗소리
2008년 ‘제주대 문화광장’이 생겼다. 처음 이 프로그램 운영팀장을 맡으면서 감중이 많았던 나의 대학생활을 떠올렸다.

여름 내내 비를 만날 수 없었던 요즘, 사람들은 비에 목말라 있다. 비를 이토록 기다린 적이 있었을까. 이런 요즘의 심정처럼 많은 것에 갈증을 느꼈던 시간이 이 나의 대학생활이 아니었을까
‘제주대 문화광장’을 운영하는 2년 동안, 후배들과 대학생활을 함께 하며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제주도라는 지역적 한계로 문화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꼭 들려주고 싶었던 강연이나 공연을 보며 후배들이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키길 바랐다.

콘서트에서 함께 노래할 때의 표정이 나, 강연을 경험하며 반짝이던 후배들의 눈동자를 지금도 기억한다. 더불어 행복해지던 순간들이었다.

그 반면 캠퍼스 안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무관심한 청춘들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 갈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메마른 삶을 사는 청춘이 지금은 많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의 현재를 보며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나의 대학시절... 지금 생각하니 수많은 갈증과 갈증의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나는 나였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나’ 라고 겁나게 고민하던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나는 나였다.

그런 갈증이 나를 대학원으로, 결국 유학으로 이끈 힘이었던 것 같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 스폰지가 되고 싶었다. 스폰지가 되어서 물기를 빨아들이고 싶었다. 목마르고 간절할 것이 많았다.

제주대신문을 받아든 후배들에게 무슨 말은 해야 하나 생각하다 보니 말보다는 음악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음악을 전곡했다. 그리고 지금도 음악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후배들에게도 내가 아는 음악을 나누고 싶어진다.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나를 이끌었던 나라 러시아 차이코프스키의 나라에서 대비처럼 만났던 음악 차이코프스키의 현악4중주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천천히 노래하듯이...
차이코프스키의 나이 31세 때의 작품이다. 정제된 슬라브 정서가 아름답게 표현된 곡으로 편안하고 다정다감한 선율이 마음의 위안을 주는 평화로운 곡이다.

러시아의 대 문호 톨스토이도 이 곡을 처음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차이코프스키 자신도 매우 만족했다는 이 곡.

차이코프스키가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밖에서 일하고 있던 마장공이 흥얼거리는 남 러시아 지방의 민요가락을 듣고 영감을 받아 작곡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흥얼거리는 이들을 보면 가끔씩 궁금해진다. 그들은 무슨 노래를, 무슨 생각을 하며 듣고 있을까?

막연한 갈증과 갈증이 많은 청춘들에게, 바쁘고 빠른 삶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이 곡 차이코프스키의 현악4중주,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천천히 노래하듯...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느긋해서 가야할 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언제나 나는 나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갈증과 나의 갈증을 바라보자. 오늘 이 음악과 함께...



우상임
음악공간 자작나무뮤지엄
음악학과 87학번

독자기고

새로운 대학문화로 자리매김할 ‘유니엑스포 제주’



이민경
중어중문학과 4

전부인 것 마냥 여겨진다.

대학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부터 MT, 개강파티 등 20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단짝친구’는 바로 ‘술’이다. ‘술’은 제주도내 대학생들에게 있어 20대를 함께 보내는 존재임이 틀림없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100

만에 육박하는 요즘들 대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취업에 혈안이다. 그러다보니 취업을 위해 어느새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스펙 쌓기’이다. 안타깝게도 도내 대학의 ‘문화’가 이 두 가지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대학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구 역할을 해주는 ‘유니브엑스포’가 제주에서도 열려 기대를 더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유니브엑스포 제주’는 앞서 말한 기존의 대학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학생들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대학생들이 손수 기획에서부터 운영을 포함한 박람회 전반을 총괄하는 대학생 박람회이다.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서 경험하는 ‘대

의 활동’, 교양적 지식들을 전파하는 ‘강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연’과 획기적이고 색다른 ‘이벤트’, 더불어, 대학생들이 큰 고민거리인 취업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시하는 ‘취업 관련 컨설팅’,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링’ 등 기존의 ‘대학문화’ 대신 대학생들의,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에 의한 진짜 ‘대학생활’을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며, 이를 제주도내 대학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이다.

나의 전공은 ‘중어중문학’이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그래픽’ 분야이다. 나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나의 능력을 펼쳐보일 ‘때’를 갈망하고 있었다. ‘유니브엑스포 제주’에서 홍보실장으로 일하는 지금 그

‘때’를 만난 것 같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가, 내가 만든 웹플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더불어 ‘유니브엑스포 제주’를 운영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보기도 했다. 직접 만든 제안서를 들고 허창진 총장님과 만나기도 했고 내가 면접관이 되어 ‘유니브엑스포 제주’를 같이 만들어갈 친구들을 선별하기도 하였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은 어쩌면 ‘꿈’ 꿈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스펙’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바라건대 도내에 많은 대학생들이 ‘유니브엑스포 제주’를 통해 새로운 대학문화를 접해보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해본다.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소리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모두 11개의 강좌와 발표대회, 현장체험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PT는 스토리텔링으로 승부 걸어야

진정한 성공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프레젠테이션 필살기

이승일 / 파워피티 대표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 학교와 직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신의 기획,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의 판권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고민은 커진다. 설득, 설명, 동기 부여, 즐거움 등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프레젠테이션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나의 가치관이나 정체성, 의견, 비전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발표자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파워포인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는 곧 프레젠테이션 경연장이다. 머릿속의 추상적 가치를 알기 쉽게 대중에게 설득하는 능력이 경쟁력이라는 점이 다. 존경받는 리더일수록 꿈·희망·미래를 담은 추상적인 가치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대중을 설득한다.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도구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취업이나 비즈니스도 객관적인 스펙으로 경쟁을 벌인다. 내가 제일이 아닐 수도 있다. 1등을 넘어설 방법은 ‘스토리텔링’ 뿐이다. 스펙을 둘째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좋은 스토리텔링은 결정을 이끄는 힘도 갖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좋은 예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처음 시도하던 2003년에 평창은 외국은 물론 국내서도 인지도가 매우 떨어졌다. 인프라도 시설도 제

대로 갖춰진 게 없었다. 당시 세 번째 도전하는 캐나다 밴쿠버를 누르고 1차 투표에서 평창이 1등을 했다.

비결은 ‘스토리텔링’의 힘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살롱이 공연을 했다. 북한에 아들을 두고 월남한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IOC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올림픽 정신인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내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결국 밴쿠버를 11표 차로 누르고 1위를 했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스토리텔링을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스토리텔링 구성을 위해 이야기 소재를 고르고 목적에 맞게 삶을 불리고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 이 세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재를 고르는 것이다. 사람의 이야기여야 한다. 발표 자체에 진정성이 없으면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드는 ‘기술’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남발하면 안 된다. 없어도 좋은 것이 애니메이션 효과이다.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화면전환 효과는 필요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지기 십상이다.

철저히 준비하는 자가 승리자

프레젠테이션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작업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



은 말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조사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필요에 맞춰 재구성해야 한다.

청중을 참여시키는 것도 기술이다. 발표자와 청중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질문하기, 따라 시키기, 박수치기, 도구 쓰기 등 청중을 발표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중과 눈을 맞추며 자기소개를 짧게 하고 다시 청중에 눈을 맞추면 자연스레 인사를 받는다. 청중도 몸을 풀었으니 편안하게 발표를 듣는다. 이와 함께 발표자의 이미지도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에토스(ethos), 로고스(logos), 페이토스(pathos)를 예로 들어보자. 프레젠테이션이 본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감성으로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좌뇌의 이성적 메시지, 우뇌의 감성의 메시지를 고루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 에토스와 로고스다. 똑같은 메시지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자신감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나 경력 없을 땐 자신감으로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

웃음으로 열여가는 행복한 세상

이완국 / 애월초 덕력분교 교사

나는 순금, 백금 보다 더 비싼 ‘지금’을 갖고 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한다. 9년 째 애월을 하거리에 위치한 애월초 덕력분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어느 모기업의 휴대폰 CF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탔다. 평일에만 50여명이 방문한다. 제주도에서 가볼만한 곳 1위에도 꼽혔다. 가끔 펜션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다. 지금은 학생 수가 60여명에 달하지만 2009년까지만 해도 학생수가 21명이었다. 교육청 폐교 대상 학교에 포함됐다. 교사가 3명뿐이어서 한 사람이 두 학년을 맡아서 수업했다. 지금은 선생남도 8명으로 늘었다. 70% 이상이 제주도 밖에서 온 아이들이다. 전학 왔다가 전학시킨 부모도 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황이 180도 달라지고 운명이 뒤바뀔다. 내 몸이 생기는 질병도 내 선택에 의한 것이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찾는다.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마음과 생각에서 온다. 스트레스는 스스로 만든다.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가 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을 조사한 적이 있다. 일단 문 열고 나가서 타이어를 발로 차는 것이 47%에 달한다. 육도 당달아 나온다. 육은 한 번 하면 멈출 수 없다. 오히려 화만 키운다. 어차피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다. ‘지금’을 잘 다스리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성적표를 부모님께 가져갔을 때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주로 낮

은 점수부터 먼저 보고 아이에게 일단 욕부터 하기 시작한다. 어제, 그제, 일주일 전 공부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왔다고 지난 과거만을 탓하며 꾸지람한다. 반대로 높은 점수부터 보고 칭찬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격려한다. 다른 과목은 점수를 잘 받았으니 점수가 낮은 과목은 금방 잘 할 수 있겠다고 아이를 다독인다. 지금을 잘 다스린다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말조심의 교훈 큰 힘 돼

말조심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 ‘소문만복대(笑門萬福來)’다. 웃는 문에는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한자 복(福)은 밭 전(田)에 입 구(口), 보일 시(示)에 하나 일(一)이다. 입으로 먹을 거나 농사지를 밭하난만 있어도 큰 복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다. 외국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무슨 일 있냐고 묻는다. 하도 웃지 않아서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뇌는 언어중추신경에 97% 영향을 받는다. 논으로 본 것보다 말로 들을 때 반응이 더 세다.

아따금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뒤편에 있는 고대봉에 오른다. 갈 때마다 비닐 봉투를 챙기고 간다. ‘복비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쓰레기를 담은 봉투지만 쓰레기봉투라고 부르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을 스스로 고생이라고 하면 고생밖에 안 된다. 봉사라고 말해야 봉사가 된다. 말이 중요한 이유다.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자

하루에 꼭 한 번은 ‘나는 내가 좋다’,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라.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이 더 효과가 좋다. 자신을 사랑하면 남 역시도 자신을 사랑한다. 어



르신들이 이마를 드러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미간으로 복을 들인다고 한다. 들어온 복이 콧잔등을 타고 내려온다. 입은 복을 받치는 그릇이다. 항상 찡그리고 다니면 복이 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윗니가 보이게 웃으면 이를 더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남자가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은 것은 웃음과 연관이 있다.

조선시대 내지는 평균수명이 11년 더 많다. 육하지 않아서다. 화가 났을 때 참으면 서 그 화를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태도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값싼 태도에서 값비싼 태도로 바꿔야 한다.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성공의 실마리는 자신 속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하지만 열정에는 반드시 권태가 뒤따른다. 권태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뉜다. 성숙으로 가져나 우울로 가는지 본인만 선택할 수 있다. 정답은 솔로몬의 반지에 적혀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몇 년 전 못 샀겠다고 얼굴 찌푸린 일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공약 이행률 무난... 일반 학우와의 소통은 미흡

<1> 좋은일반 총학생회 상반기 평가

‘좋은일반’ 총학생회(회장 유병선)가 제주대 학생들의 대표를 맡은 지 8개월이 지났다. 임기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제주대신문은 2학기 개강을 맞아 총학생회의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고자 한다. 공약 이행률, 학내·외 목소리, 학우들과의 소통 등 3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 공약 이행률

‘좋은일반’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하, 학생들의 권익신장, 취업 및 학사, 학우들과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까지 52개 중 29개로 55.8%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인하, 도서관 버스 확충, 학생생활관 의무식 개선, 총장 선출권 학생참여 보장 등이 이행됐다. 총장과의 대화의 장 마련 등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공약 이행률

55.8%로 대체로 무난

총학 힘으로만 이뤘다고 보기 힘들어

학내·외 목소리

시국선언·총장과의 간담회 등 통해 학교 안팎 전반에 목소리 내

학우들과의 소통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등 노력

학생회 중심 소통의 한계 노출

이와 함께 총학생회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소통 강화와 총학생회 예·결산안 공개를 통해 투명한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아라대동제는 ‘일반아라 기획단’을 통해 대동제 프로그램을 공모했고 야외음악당에는 수많은 학생과 도민이 참여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총학생회의 힘으로만 진행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선거운동본부 당시 내걸었던 공약 중 학교에서 이미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이던 사업도 있었다. 또한 임기 시작 전에 완료된 사업도 있었다. E-learning 강의 스마트폰 지원은 지난해 8월 정보통신원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사업이었고 제3도서관 신축(총학

생회는 전자도서관 신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은 지난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 신규사업으로 신축사업을 진행해오던 것이었다. 산천단 인도 정비는 좋은일반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됐다.

또한 취업 관련 공약 중 일부는 취업전략본부에서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도 있었다. 좋은일반 총학생회는 선거운동본부 시절 학교에서 진행해오던 취업 관련 공약을 공약집에 넣은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학내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알려주기 위해 학교에 기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말한 공약들은 총학생회의 힘으로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좋은일반 총학생회의 미이행 공약은 전자 출결 시스템 도입, 수강 신청 초과 과목 이력인 확대, 취업박람회 등 17개 공약이 남아 있다. 전자 출결 시스템 도입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학사과와 협의 중이다. 예산 문제로 독도 방문 대신 우도 해안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미이행 공약들에 대해서도 대체 공약을 진행하거나 빠른 시일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관련 공약은 유학생도우미 시스템 개선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늦게 편성되면서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했다. 또 장애인 관련 공약은 행사를 진행한 부분 외에 보이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는 특임국을 신설했고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요구사항을 대학본부 측에 전달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볼 수 있다.

▶ 학내·외 목소리

좋은일반 총학생회는 비교적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내·외로 잘 보여줬다. 총장 선출권 학생참여를 보장 받았고, 평의회에서 대학 예산안 심의할 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도 얻었다. 또한 한 학기에 한 번씩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모든 단과대학의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최근 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도 대자보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

또한 학우들의 목소리 전달 과정도 총학생회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학과의 목소리를 단과대학 회장이 맡게주고, 중앙은 영위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평의회 학생 참여의 경우 총학생회는 평의회에 참여해 의결을 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예산안 심의 중 발언권을 얻는 수준에 그쳤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총학생회는 전 학년에 대해 0.39%씩 인하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학년만 1.7%가 인하되는데 그쳤다. 또한 국정원 조사 성명서 발표 때에도 반발했던 학생들도 있었다. 좋은일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학우들과의 소통

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좋은일반 총학생회는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제주대 커뮤니티 ‘제코’ 활성화를 내걸었다. 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SNS를 적극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학우들과의 소통은 덜 된 편이다. 총학생회는 소통을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해 모르는 학우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코 활성화를 내걸었지만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중앙운영위나 단과대학 혹은 학과 학생회들의 의견은 잘 수렴했지만 일반 학우들과의 소통은 아쉬운 점이 많다.

총학생회 임기가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아직 총학생회 임기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좋은일반 총학생회는 선거운동본부 시절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고, 공약들을 100%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을 지키도록 남은 임기동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동현 기자

○=이행 완료 ☆=이행예정
△=일부 이행 ×=미이행

2013년도 상반기 좋은일반 총학생회 공약 이행표

01. 등록금 인하	○
02. 등록금 예산 및 결산 내용 공개	○
03. 총장 선출권 학생참여 보장	○
04. 총장과의 대화의 장 마련	○
05. 독도 방문	×
06. 제주대학교 기념품점 설립	○
07. 취업박람회	☆
08. 취업캠프	○
09. 기업 초청 강연회	○
10. 도내기업 탐방기회 확대 및 기업초청	○
11. 해외 인턴십 모집인원 확대	○
12. 교류수학생 확대	○
13.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
14. 수강신청 초과과목 인원 확대	×
15. E-learning 강의 스마트폰 지원	○
16. 4학년 취업자 이력인	×
17. 시험성적 공개	×
18. 오프라인 수업 촬영	○
19. 전자도서관 신축	○
20. 도서관 버스 확충	○
21. 도서관 CCTV 설치	×
22. 제2도서관 방음시설 확충	×
23. 전자신문에 제주대신문 추가	☆
24. BTL 건립 추진	○
25. 기숙사 냉방시설 확대	○
26. 기숙사 자치위원회 부활	×
27. 의무식 개선	○
28. 총학생회 모바일 HP 개설	○
29. 제주대학교 커뮤니티 ‘제코’ 활성화	×
30. 순환버스 노선 재정비	○
31. 제주대 공식어플 버스시간표 추가	○
32. 순환버스 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
33. 체육관 리모델링	△
34. 교내 ATM기기 추가설치/시간연장	△
35. 산천단 인도 정비	○
36. 스티디룸 확충	×
37. 무료 프린터 설치	○
38. 가로등 추가 설치	○
39. 휴대폰 급속 충전기	☆
40. 생협 홈페이지 제작	×
41. 조합원증 발급	×
42. 아라홀·한라캐페테리아추가 주말개방	×
43. 백두관 식당 메뉴 개선	○
44. 좋은일반 Festival	○
45. 4·3사건 영상제 및 유적지 탐사	○
46. 문화광장에 4·3강연 추가	△
47.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활성화	×
48. 장애학생지원센터 활성화	×
49. 유학생 학생회 활성화	○
50. 유학생 도우미 시스템 개선	×

“2학기에도 초심 잃지 않고 남은 공약 이행에 최선”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옛그제 임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다. 8개월가량 총학생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때도 많았지만 돌아해보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뿌듯함도 많지만 아직 한 학기나 남아 있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아쉬웠던 점은.

“모든 사업이나 행사들이 처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다. 이제 와서 보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이와 함께 많은 학우들이 총학생회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사실이 아쉽다. SNS나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많은 학우들이 총학생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겠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약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약은 학생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이다. 권익 신장을 위해 평의회에 학생대표 참여, 총장 선출 시 학생 참여를 보장 받았다. 또한 총장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 향상을 위해 순환버스 노선을 재정비하고 도서관 야간버스를 확충하기도 했다.”

-앞으로 못다한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무로프린트 서비스 제공, 휴대폰 급속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진행 예정이거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체 공약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독도 방문의 경우 예산 상의 문제로 우도 봉사활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나머지 공약들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적극 건의하고, 총학생회 또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학생들 중에서 중앙자치기구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



좋은일반 총학생회 회장 유병선(왼쪽), 부회장 홍성훈

요한 부분은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회도 보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을 보인다면 학생회의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기 어렵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과 학생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학생회가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 나가고 있을 때에는 칭찬을,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따가운 질책을 해주길 바란다.”

-차기 총학생회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차기 회장에게 바라는 점은.

“현재 차기 총학생회 후보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 차기 총학생회에게 선거를 준비할 때 학교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자신이 당선이 되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한 많은 학우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한다면 일반아라 학우들이 원하는 총학생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많은 펠리파와 기대감으로 시작한 총학생회 임기가 8개월 가깝게 지났다.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점도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총학생회를 이끌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동현 기자

2013학년도 제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2013학년도 2학기 전임공원 공채를 통해 11개 분야 11명의 교수가 8월 26일자로 새롭게 임용됐다. 그리고 4개 분야 4명의 기금교수도 새롭게 임명됐다. 이번 교수 공채는 11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6.8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생물학과 미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29:1의 경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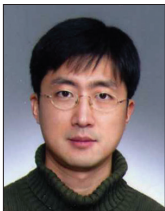
김은희 (중어중문학과)
조교수-중국음운학
△학사: 제주대 중어중문학과
△석사: 제주대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
△박사: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
최종 학위 논문명 : 明代 官語 音韻體系 研究 - 北京官語를 중심으로



박수제 (생물학과)
조교수-미생물학
△학사: 충북대 미생물학과
△석사: 충북대 미생물학과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박사: 충북대 미생물학과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최종 학위 논문명: Metagenomic studies of a microbial consortium comprising ammonia-oxidizing archaea and sulfur-oxidizing bacteria enriched from marine sediment



김승호 (의학과)
조교수-소아청소년과학(소아신경)
△학사: 제주대 의학과
△석사: 서울대 의학과 뇌신경학
최종 학위 논문명: Clinical features of non-epileptic events in children evaluated by video-EEG experience in a single center



박현수 (의학과)
기금 조교수-응급의학
△학사: 서울대 의학과
△석사: 강원대 의학과
△박사: 서울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폐쇄 회로 영상 재검토를 통한 응급실 심폐소생술 기록의 정확성 분석



양정필 (사학과)
조교수-한국근대사
△학사: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 연세대 사학과 한국근대사
△박사: 연세대 사학과 한국근대사
최종 학위 논문명: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장혜진 (법학과)
조교수-법조실무
△학사: 고려대 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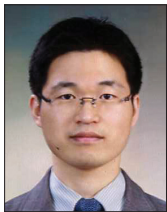
이선호 (의학과)
부교수-안과학
△학사: 서울대 의학과
△석사: 서울대 의학과 안과학
최종 학위 논문명: Visual outcome with photodynamic therapy, anti-VEGF therapy and their combination for polypoidal choroidal vasculopathy



박성경 (의학과)
기금 조교수-마취통증의학
△학사: 제주대 의학과
△석사: 아주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대장포진후신경통 환자의 경추간공 경막외신경차단과 지속적 경막외강내 약물 주입 치료 효과



라광우 (무역학과)
조교수-무역보험론
△학사: 강원대 무역학과
△석사: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무역실무
△박사: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무역실무
최종 학위 논문명: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한국 무역업체의 적화보험조건선택에 관한 연구



김영석 (의학과)
조교수-방사선종양학
△학사: 순천향대 의학과
△석사: 연세대 의학과 방사선종양학
최종 학위 논문명: MGMT Gene Promoter Methylation as a Potent Prognostic Factor in Glioblastoma Treated With Temozolomide-Based Chemoradiotherapy : A Single-Institution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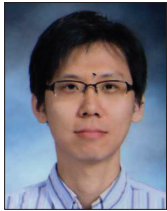
서준영 (의학과)
조교수-정형외과학(척추외과)
△학사: 가톨릭대 의학과
△석사: 가톨릭대 의학과 정형외과
최종 학위 논문명: 당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노화 계세포에서 Davallialactone의 항노화 기전 연구



장진보 (법학과)
기금 조교수-중국법
△학사: 중국산둥대 법학과
△석사: 제주대 법학과 사법
△박사: 서울대 법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대중국 회사형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강경희 (과학교육과 생물교육전공)
조교수-생물교과교육론
△학사: 제주대 과학교육과
△석사: 연세대 생물학교육 생물교육
△박사: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생물교육
최종 학위 논문명: 과학사를 활용한 발견적 순환 학습모형과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중학교 ‘생명’ 영역을 중심으로



김진우 (의학과)
조교수-해부학
△학사: 경북대 생물학과
△석사: 경북대 의학과 해부학
△박사: 경북대 의학과 해부학
최종 학위 논문명: Tubular epithelial restoration and interstitial fibrosis after renal ischemia and reperfusion injury



양태기 (의학과)
기금 조교수-중재시술
△학사: 전북대 의학과
△석사: 전북대 의학과 신경외과
△박사: 전북대 의학과 소아과
최종 학위 논문명: 당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노화 계세포에서 Davallialactone의 항노화 기전 연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2만5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사진과 이름, 학과,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press@jejunu.ac.kr ■문의=754-2279